

올리고머 아밀로이드-베타 검사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 Oligomerized Amyloid beta test



Oligomerized Amyloid beta test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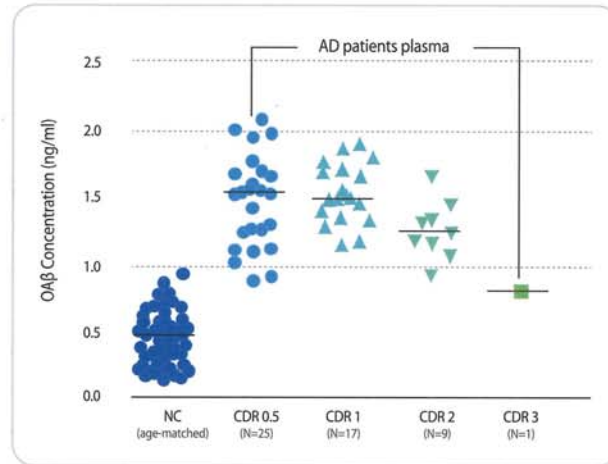
증상이 나타나기 전, 위험도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초기진단 및 초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알츠하이머병은 뇌신경세포 사이에 아밀로이드-베타 펩타이드의 축적으로 형성되는 신경반(neuritic plaque)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밀로이드-베타의 올리고머화 양이 증가할수록 알츠하이머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허가 임상 Inblood™ Oap Test 결과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는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수치에 따라 저위험, 경계,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저위험

저위험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기억력 저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재검사를 권장드립니다.

▲ 경계

저위험과 고위험의 경계 구간입니다.
연령, 음주, 흡연, 스트레스, 기저질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 교정 및 기저질환 관리 후 (6~12개월 후) 재검사를 권장드립니다.



▲ 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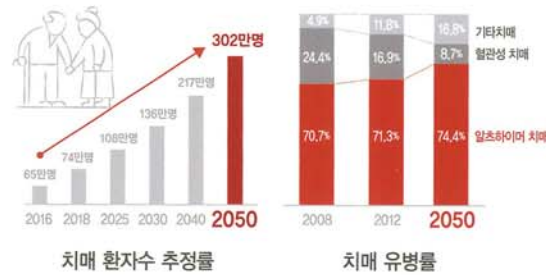
고위험군이나,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병력 및 여러 검사 결과와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치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병 (Alzheimerdisease)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50~80%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뇌 피질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기억력과 언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판단력과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성격도 변화되어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는 병입니다.

고령화시대 급증하는 치매 환자



출처 : 중앙치매센터, 65세 이상 노인대상 추정치

알츠하이머병은 진행성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 지므로 조기 발견하여 발병을 지연시키고, 일상 생활 수행능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확인 검사로 조기 발견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문진을 통한 인지 또는 행동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영상의학적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학적 검사는 뇌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가능한 바이오 마커가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 수칙 3권 3금 3행

3권 권

권해요.



-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 금

참으세요.



- 술 적게 마시기
- 금연하기
- 뇌 손상 예방하기

3행 행

행동하세요.



- 혈당·혈압·콜레스테롤 확인하기
- 친구, 가족과 자주 소통하기
-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CAP 인증기관



ISO 9001



K S L M